

울림과 잠김

반모임 순서

- I. 성호경, 성가, 예수님 초대 기도
- II. 묵상
 - †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 † 복음 읽기
 - † 말씀에 머물기
 - † 말씀의 울림
 - † 말씀에 잠김
- III. 생명말씀 및 실천사항 정하기
- IV.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 V. 소공동체 기도문
- VI. 마침 성가

묵상 길라잡이

-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 마음 열기
 - 복음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집중하여 듣습니다.
- 말씀에 머물기
 -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적은 뒤 “이것이 오늘 나의 어느 부분에 다가왔는지”에 대해 묵상합니다.
- 묵상과 말씀의 울림 나누기
 - 묵상한 부분을 형제자매님들과 나누어 봅니다. <말씀의 울림>을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 말씀에 잠김
 - 본당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누고픈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몸이 되신 말씀이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을 제 위에 보내시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소공동체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9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말씀의 울림

- 23 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어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26 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of my words,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when he comes in his glory and in the glory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angels.”)
나의 신앙이나 종교를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감추려 한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에 잠김

26 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of my words.”)

어떤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자매님들은 무엇을 건드리면 못 살 것 같으십니까?” 여러 자매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자식이요, 건강이요, 돈이요. 등등” 물론 목숨줄처럼 잡고 있는 것이 각각 다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기본적으로 다 걸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자존심’에 걸려 있었습니다. 뺏뺏하게 서 있는 자존심을 꺾으면 벼랑에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언니와 서로의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졌고 예전에 상처까지 건드려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있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부글부글 올라왔습니다. ‘언니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내가 먼저 전화하나 봐라.’ 하면서 내 안에 옹골지고 완고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러다 언니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니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해 줄 수 있어?’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부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언니한테 부탁하지 않고 해결해보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백방으로 전화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람.’ 하는 마음이 올라왔고 더 이상 바보짓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자존심과 수치심을 내려놓고 언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부탁했습니다. 언니는 흔쾌히 들어주었고 언니한테 꿈꿨던 내 마음이 풀어지면서 ‘언니, 미안하고 고마워.’ 했더니 언니가 ‘너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느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자존심과 수치심을 내려놓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용서해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며 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 또한 자존심이 마치 나를 지켜줄 방어벽처럼 생각하여 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였습니다. 내가 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와서 내 뜻을 꺾기가 싫어서 내가 맞는다고 박박 우겼습니다. 내 자존심을 ‘나’라는 존재보다 소중하게 다루느라 언니와 아예 연락을 안 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담이 숨어 하느님과 관계가 멀어졌듯이 저도 그렇게 한 것이었지요.

회개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닌 하느님의 딸인 나, 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했을 때,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로 인해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9 월 25 일 연중 제 26 주일 ◆ 루카 16,19-31

넷째 주

16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21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22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23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25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26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29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하고 대답하자, 30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하였다. 31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말씀의 울림

- 19 절: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There was a rich man who dressed in purple garments and find linen and dined sumptuously each day.)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25 절: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My child, remember that you received what was good during your lifetime while Lazarus likewise received what was bad.’)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재능, 재물, 건강, 시간 등)

말씀에 잠김

26 절: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is established.)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 부자가 죽어서 저승에서 고통받게 된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부자가 생전에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다거나 큰 악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사유가 나오지 않는 데다 단순히 천국과 지옥,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다 보면 복음이 전해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한껏 복을 받고 재물의 축복도 받은 부자였습니다. 둘 다 부자였지만 한 명은 천국에 또 다른 한 명은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되었음을 봅시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가 그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조카 롯을 배려하고 자기 몫을 기꺼이 나누고 내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그들을 위해 주님께 빌었고, 아들 이사악까지 제물로 바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주님께 감사드렸던 행동들에서 그의 마음이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주님께 받은 은총과 축복을 잘 순환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음 속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 있는 라자로를 못 본 척 거둬 외면했고, 라자로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질병과 고통, 소외와 굶주림에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자기 집 대문 밖으로 가져가 나누지 못하는 모습에서 부자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단절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그랬듯이 어쩌면 우리도 고통 후에 라자로가 보이고, 고초를 겪은 후에야 자비를 떠올리며,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놓친 수많은 날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주셨고, 실천할 기회 또한 아주 가까운 곳에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라자로가 부자에게 바란 것은 그가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혀를 식혀줄 만큼 적은 양의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부스러기조차 라자로에게 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나누고 내어줌으로써 나에게 돌아올 몫에 대한 염려,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저 단순한 귀찮음 때문이었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가게 된 저승은 심판의 결과로 보이지만, 결국 저승의 구렁을 만든 것은 부자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사는 동안 가진 것을 쌓으면서 대문 밖에서 넘어올 수 없는 벽을 만들어 자신과 이웃을 분리시켰고, 그 사이로 무관심과 이기심을 흘려보내며 크고 깊은 구렁을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구렁이 점점 커지고 깊어질수록 가난한 이들만 부자에게 건너오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느님과 사이에도 큰 구렁이 놓여 하느님도 부자에게 건너오실 수 없고, 부자도 하느님께로 건너갈 수 없는 고립 상태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무관심과 이기심이 파놓은 구렁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과 분리되고 단절을 만들어 냈을 보여줍니다. 부자가 라자로를 외면하면서 자기 재물은 지켰을지 몰라도 날마다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며 결국 자신의 구원을 지켜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구렁을 메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라자로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미 가진 것 중의 일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심과 최소한의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과 돌봄, 나눔과 내어줌의 작은 실천 하나가 굶주림과 고통의 구렁에 갇힌 이에게는 구렁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준 미약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의 사다리까지도 마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결국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가 한 줌의 흙이 되어 우리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하느님과 나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구렁을 메꾸어 주어 우리가 서로 건너오고 건너갈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아기천사 John

김예현 스텔라

안녕하세요. 저는 백일 남짓 지난 아기천사 John의 엄마, 김예현 스텔라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기 직전 디트로이트 한인 성당을 찾았고, 임신, 출산 및 육아 기간 동안 성당을 다니며 많은 축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배우고 느낀 점들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저는, 임신 준비로 몸과 마음이 무척 지쳐있을 무렵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1년 넘게 임신을 준비하였지만, 매달 연속되는 실패로 속상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항상 마음속엔 세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전주 전동 성당에서 남편은 신자, 저는 비신자로 관면혼배를 올린 이후, 줄곧 세례를 받고자 하였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로 미뤄오던 참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비자 연장을 위해 이 주 정도 한국에 나가게 되었고, 저는 혼자 미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현듯이 성당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글맵 검색 결과, 제가 사는 그랜드래피즈에는 한인 성당이 없었고, 미시간주 내에 단 한 곳 디트로이트 김대건 한인 성당이 검색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성당까지는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거리였습니다.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였지만, 무작정 운전대를 잡고 액셀을 밟았습니다. 매월 거듭되는 임신 실패로 몸과 마음이 허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혼자 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었지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기에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성당을 방문한 첫날, 운이 좋게도 진행 중인 예비자 교리 반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사를 드린 후, 작은 교실로 이동하여 정진 그라시아 선생님과 예비자 교리 반 동기들을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끼리 이미 안면을 트셨을 텐데도, 새로 들어온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를 받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좋았고, 이번엔 꼭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사와 수업 중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당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남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성당을 나간 지 몇 주 되지 않아 임신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와주지 않았던 생명이, 성당에 나가고 몇 주 만에 저희 가정에 와 준 것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남편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확인 하였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잘 지켜내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매주 왕복 4 시간에 걸쳐 성당을 다니며 미사를 드리고 교리 공부를 하던 중, 저의 임신에 큰 고비가 발생하였습니다. 9 월 중 어느 날 갑자기 하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많은 출혈에 놀라고 당황했고, 혹시나 아기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해가 밝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아기집과 아기는 잘 있었고, 다만 자궁 내 환경이 좋지 않아 절대 안정을 취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아기가 무사한 것은 정말 다행이었지만, 어렵게 시작한 교리 공부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던 생각에 속상하였습니다. 성당에 어떻게 애길 꺼내야 할지 고민 끝에 어렵게 정진 그라시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임신이 된 상황부터 이슈가 생긴 상황까지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의 큰 걱정과는 달리, 생명이 찾아와 준 것에 대해 아주 많은 축하를 해 주셨고, 무엇보다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당에 가서 교리 공부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지만, 제가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공감해주셨고, 신부님, 선교 부장님과 상의해보시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무거웠던 마음이 진정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매주 수요일 오전 화상으로 예비자 교리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평일에 2-3 시간, 개인 시간을 내주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선생님께 감사했습니다. 집에서 발이 뭉뭉 묶인 채 누워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저로서는 매주 수요일은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을 알아가는 것도 좋았고, 수업 중 선생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단체 기관인 레지오, 푸른 군대 등을 통해 단체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두 달 정도 지속되던 하혈은 멈췄고, 제 아기는 배 속에서 무사히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12 월 25 일 성탄절에 배가 살짝 나온 상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기가 배 속에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임신 중후기엔 주로 신부님께서 공유해주신 성가를 들으며 태교하였습니다. 성가를 듣고, 태아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편안해졌고,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태동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는 집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랜싱 공소로 옮겨 미사를 드리게 되었고, 랜싱의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많은 기도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축하와 응원 속에서 저는 4 월 19 일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랜싱 공소에서 기도해주신 것과 같이 아기가 남편과 저의 좋은 점들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가 성당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육아 중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한 아기의 엄마가 되어있는 행복한 지금을 꿈꾸며 계속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인 아기, John(지호)을 잘 기르며,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9 월 초에는 유아세례를 받을 예정인데, 진정한 성가정을 이루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지금 글 쓰는 와중에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우리 아기천사 John 지호야, 하느님과 수호성인의 보호 아래서 너의 앞날이 영원히 찬란하고 빛나길 바랄게.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무엇보다 건강하게만 자라주렴, 우리 행복하자.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도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동네방네 메아리

- (TR1) 전출한 한 가정으로부터, 그동안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오실 가정을 위해서도 많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 (TR4) 본당과 트로이 구역에 많은 봉사를 해주신 박지영 레지나 자매님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십니다. 아쉽지만 하느님 은총 가득하시길 반원 모두가 기도드립니다.
- (RC3) 하루에 한 번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부부가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 (NV4) 매일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습관화하며,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RC4/CT)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실천 사항

1. 주변 사람들에게 본당의 날 행사에 참여를 권유하고 신자들과 친교 나누기
2. 성사를 거행하고 교회를 이어가는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기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주최)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주최)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